

## 메디톡스, 'MBA-P01' 임상3 상 돌입

〈차세대 보툴리눔 독신 제제〉

비동물성 원료 사용... "내년 출시 목표" 있다.

메디톡스코리아가 2022년 출시를 목표로 차세대 보툴리눔 독신 제제의 임상 3상에 돌입한다.

메디톡스 계열사 메디톡스코리아는 메디톡스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총 집결해 개발한 차세대 보툴리눔 독신 제제 'MBA-P01'의 임상 3상 시험 계획(IND)을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메디톡스코리아는 국내 4개 의료기관에서 총 318명의 중등증 및 중증의 기간 주름 개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MBA-P01은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신 제제 분야를 연구해온 메디톡스의 R&D 역량이 총 집결된 차세대 보툴리눔 독신 제제다. 지난 2016년 개발에 착수, 2018년부터 관련 임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식약처 승인으로 임상 3상에 돌입하게 됐다.

MBA-P01은 동결 건조 제형의 기존 보툴리눔 독신 제제와 달리 새로운 제조공정을 적용한 원액을 사용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 생산 수율과 품질을 향상시켰다. 또 제조과정 중 보툴리눔 균주 배양 단계에서 사용되는 동물 유래 물질 단백질 대신 비동물성 원료 배지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 롯데홈쇼핑, 디지털 신기술 생방송서 활용

# 해외명소·설원 등 현장 생생체험

홈쇼핑에 VR·AR 등 신기술 접목  
언리얼 엔진 등 최신 장비 도입  
카테고리별 가상 사물·공간 구현

롯데홈쇼핑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신기술을 TV홈쇼핑 생방송에도 접목해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경험을 선사한다.

롯데홈쇼핑은 가상 피팅 서비스 '리얼피팅', 플래그십 매장을 구현한 'VR 스트리트' 등 모바일 채널을 중심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최근 언택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가상체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TV홈쇼핑 생방송에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상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카메라 영상에 구현하는 '언리얼 엔진' 등 최신 기술과 장비를 도입했으며, 전문 제작 인력을 통해 방송 영상의 차별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식품, 여행, 패션 등 카테고리별 상품 특성을 분석해 가상의 사물과 공간을 스튜디오에 재현하고 있다. '이경제 더힘찬 녹용', '초유콜라겐 프로틴' 등 건강식품 방송에서는 원료와 효능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현실적으로 구현했다. 현장감이 중요한 여행상품 방송에서는 현지 랜드마크를 비롯한 가상



롯데홈쇼핑이 VR,AR 등 디지털 신기술 생방송 적용을 확대했다.

/롯데홈쇼핑

건축물을 선보였다. 지난해 10월 '롯데호텔 제주' 판매 방송에서는 호텔 전경과 수영장을, 지난 3월 '참좋은여행 희망패키지' 론칭 방송에서는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도 선보였다.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패션 페스타' 특집전에서는 AR 특집 방송을 총 7회 진행했다. 가상의 야외 수영장을 배경으로 '폴앤조', '조르주 레쉬' 등 단독 브랜드 여름 신상품을 판매했으며, '진도 모피', '씨티지 양모 베스트' 등 역시 신상품 방송에서는 설원을 스튜디오에 구현했다. 해당 방송은 '패션 페스타' 전체 방송의 평균 주문건수와 비교해 50% 이상 높은 실적을 보였다.

롯데홈쇼핑은 빅데이터도 적극 활용

하고 있다. 특히 기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올해 더위가 전년보다 2주일씩 시작될 것으로 전망, 여름 식품과 가전을 일찍 편성해 호실적을 거뒀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창문형 에어컨을 시작으로 계절가전 판매를 약 2주 앞당겨 4월 초부터 편성했다. 결과, '신일 서클레이터' 3회 방송에서 주문금액 14억 원을 달성하는 등 4월 한달~5월 첫주 누적금액이 20억 원을 기록했다.

이제껏 롯데홈쇼핑 방송운영부만장은 "TV홈쇼핑뿐만 아니라 티커머스 등 다양한 채널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상품 주목도를 높이고, 쇼핑의 재미까지 제공하며 차별화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한미약품 'HM15211' 희귀 간질환 치료효과 확인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

원발 경화성·담즙성 담관염 개선

한미약품이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제로 개발중인 랩스트리플 아고니스트(HM15211)를 간 희귀질환 치료제로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했다.

한미약품은 23~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유럽간학회(EASL) 국제 간 학술대회(ILC)에서 HM15211의 NASH 치료 및 간 희귀질환 치료 효과, 기전 확인 등 3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HM15211은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분비 및 식욕억제를 돕는 GLP-1, 인슐린 분비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GIP 수용체들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삼중작용 바이오신약 후보물질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미약품은 2020년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원발 경화성 담관염(PSC)과 원발 담즙성 담관염(PBC) 치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HM15211의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PSC와 PBC 모델에 HM15211을 투약한 후 측정된 간 섬유화 지표 모두에서 개선 효과가 확인됐으며 그 효능이 경쟁 약물로 알려진 오메티콜산보다 우수했다. 또한 간 문맥 염증 및 조직괴사율을 낮추는 등 조직학적인 간 지표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추가 연구에서는 기존에 확인했던 직접적인 항염증 및 항섬유화 효과와 더불어 HM15211이 간 내 담즙산 생성도를 조절한다는 기전을 새롭게 규명했다.

/이세경 기자

## 스파오 '리슬' 컬래버 상품 출시

이랜드월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가 오는 25일 한복 브랜드 '리슬'과 협업한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한다.

스파오와 리슬이 협업해 출시하는 이번 생활 한복 컬렉션(사진)은 총 10종의 의류와 잡화류로 구성된다. 의류는 전통 매화와 대나무 무늬 모티브의 패턴을 적용한 한복 로브 2종과 과자마 6종으로 선보이고, 잡화류는 노리개 장



식 2종으로 구성해 출시한다.

이번 협업 상품은 SPA 브랜드에서 최초로 출시하는 생활 한복 컬렉션으로, 의류는 3만 9900원부터 6만 9900원의 가격에, 잡화류는 1만 2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 없이 한복을 접해볼 수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차바이오텍, 호주 난임환자 정상임신 지원

호주 난임센터 '시티 퍼틸리티' 협력  
착상전 배아 유전 검사 서비스 제공

차바이오텍이 국내 최초로 호주 '유전체 분석' 시장에 진출한다. 호주 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난임 환자들을 도와 정상적인 임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바이오텍은 차바이오그룹 글로벌 네트워크 중 호주의 난임센터인 시티 퍼틸리티와 협력해 호주 난임환자들에게 '착상전 배아 유전 검사(PGT)'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티 퍼틸리티는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등 호주 주요 5개 도시에서 8개의 난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염색체 이상으로 임신 실패가 의심되거나 습관성 유산이 우려되는 부부를 대상으로 '착상전 배아 유전



차바이오텍 서울역 유전체센터 강인수 센터장(왼쪽)이 연구원과 함께 '착상전 배아 유전 검사' 결과를 논의하고 있다.

검사'를 시행한다. 유전적으로 염색체가 정상인 건강한 배아를 선별해 시험관아기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호주는 난임환자의 증가로 '착상전 배아 유전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그동안 유럽에 검사를 의뢰해 왔다.

시티 퍼틸리티는 여러 유전체 분석 기관을 비교·평가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차바이오그룹의 난임기술을 활용해 유전체 분석·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바이오텍과 계약을 맺고 검사를 의뢰하게 됐다.

차바이오텍은 2020년 말 유전체사업 본부를 발족시켜 유전체 분석·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착상전 배아 유전 검사'를 진행하는 차바이오텍 서울역 유전체센터는 경력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의료진·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차바이오텍은 호주를 시작으로 유전체 진단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차바이오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대웅제약, '펙수프라잔' 중남미 4개국 진출

콜롬비아 바이오파스사와 340억 계약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펙수프라잔'이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4개국에 추가 진출한다.

대웅제약은 콜롬비아 바이오파스사

와 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칠레에서의 펙수프라잔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약 340억 원이다.

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현지 국가들에서 펙수프라잔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바이오파스사에 부여했다. 4개 국가의 소화기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6300억 원(2019년 아이큐비아 기준)에 달한다. 양사는 2024년까지 계약 국가들에서 펙수프라잔의 현지 허가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바이오파스사가 현지 임상 및 허가 취득 절차를 담당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이세경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25일(금)  
음력: 5월 16일

수도권 날씨  
20~27℃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2 | 해질 / 19:5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